

□ 原油 價格 急騰의 真相¹⁾

- 최근 원유 가격의 급등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실수요 증가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선물시장에서 풍부한 자금을 배경으로 투기 자본 및 헤지 펀드의 투기적인 거래에 의한 측면이 강함
- 이에 대응하여 OPEC는 원유 가격이 일정 범위를 넘으면 생산량을 조정하는 프라이스-밴드제를 도입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투기 자금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임
- 일본·한국 등 아시아 주요 석유 수입국들은 에너지源을 다양화하면서 중동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투기적 色彩 濃厚

- 油價 高수준 지속

- 1999년의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85억 3천만 톤이며, 이중 34억 6천만 톤(40.6%)이 석유로 보충되며, 필요한 석유 공급의 40.8%는 OPEC 국가에서 생산함
- 원유 가격은 WTI 기준으로 98년 말에 1베럴 = 10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후에 OPEC의 감산 결정으로 99년 3월까지 日産 430만 베럴의 감산이 이루어짐
- 이로 인해 원유 가격은 99년 말에 25달러, 2000년 2월에 30달러를 넘어 현재의 고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주요국의 석유 수요 동향(97년, %)>

의존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석유 의존도	53	40	36	40
석유 輸入의존도	100	56	50	91
석유 中東의존도	83	20	13	24

주 : 석유 의존도는 1차 에너지 공급에 차지하는 비중, 수입의존도는 수입/(국내 생산-수출+수입)

자료: 通産省, 國際에너지機關

1) 이 글은 須藤 繁(미쓰비시總合研究所 專門研究員)의 「危機の抑制策が急務」(日本經濟新聞, 2000.9.14)를 요약 정리한 것임

－ 原油 가격 急騰의 배경

- 원유 가격 급등의 일차적인 원인은 99년 이후 아시아 경기 회복, 미국 경기의 지속적인 확대, 일본 및 유럽 경기의 개선 등 세계 경제의 기초적 조건(펀더멘털)이 양호한 추세를 보인데 따름
-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것은 원유에 대한 실수요의 증가뿐 만 아니라, 거래 규모가 실수요 이상으로 확대된 선물시장의 영향으로 투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임
- 98년 뉴욕 석유거래소 참가자의 구성을 보면, 석유 trader가 37%, 기관투자가 27%, 펀드가 7%이며, 精製業者 등 석유 現業者는 29%에 불과함
 - 이는 실수요자보다 기관투자가 및 헤지 펀드 등 투기 자금이 시장에 보다 많이 참가하고 있음을 반증함
- 뉴욕 석유거래소의 1일 거래량은 약 7천만 배럴 정도이나, 1 배럴 = 25 달러로 환산하면 17.5억 달러에 불과한 규모임
- 주식·채권 및 외환시장에 비해 원유 선물시장은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잉여 자금에 의한 헤지 펀드의 개입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변동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투기자금이 원유 선물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원유 가격은急落할 가능성도 상존함

－ 투기 억제책 急先務

- OPEC는 원유 가격의 急騰落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프라이스-밴드제를 실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22-28 달러를 20일 이상 逸脫할 경우, 각국은 협조하여 하루 50만 배럴 단위로 생산량을 增減한다는 것임
- 그러나 많은 관계자들은 프라이스-밴드제의 실효성을 의문시하고 있음
- 원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국가가 통화위기에 대응하여 실시했던 투기자금 대책의 일환으로 헤지 펀드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거래 감독 당국이 선물시장 참가자에게 석유 거래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거나, 거래로 인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석유 · OPEC의 未來

－ 石油 中心 時代 持續

- 미국 에너지부가 금년 3월에 발표한 국제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OPEC의 원유 생산량은 2020년에 日産 5,590만 배럴로 98년에 비해 하루 2,550만 배럴이 증가함
- 향후 적어도 20년 정도는 석유 중심 시대가 지속될 것이며, 에너지源으로써 석유의 중심적인 역할은 여전히 지속될 것임

－ OPEC의 過去와 未來

- OPEC는 1960년에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주엘라 5개국에 의해 설립됨
- 당시에는 미국 등 거대 국제석유회사들이 세계의 석유 수급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시대임
- OPEC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이며, 특히 73년 10월에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여 미국과 네델란드에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함
→ 제1차 석유위기로 석유 가격의 결정권은 OPEC이 완전히 장악하게 됨
- 70년대의 과도한 석유 가격 인상은 非OPEC 국가들의 석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국들의 省에너지 ·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유발시킴
→ 결국 세계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OPEC의 지위가 서서히 떨어지게 됨
- 80년대 이후 OPEC는 생산 조정을 통하여 전체 생산량의 상한선과 국가별 할당을 정하고 석유 수급의 베런스 유지에 부심하고 있음
- OPEC은 장래에 인도네시아 등 일부 가맹국들이 석유 純수입국으로 전략하고, 생산 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동 산유국과 베네주엘라 등이 二分됨으로써 미니 OPEC化 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향후 OPEC 국가들은 석유 가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산유국과 소비국의 공존공영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 향후 과제

－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緊要

-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주요 석유 수요국들은 수차에 걸친 석유위기를 통하여 에너지 安保上 과도한 석유 · 중동 의존 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체 에너지원 개발의 중요성을 절감함

- 그러나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유력시되던 원자력 발전은 최근 사고로 국민들의 原電 감정이 높아지고 있음
- 기본적으로는 석유·천연 가스·원자력·석탄 및 新에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최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하느냐가 중요함
- 또한 OPEC 주요국(=중동 산유국)의 경제 운용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하여 상호 의존 관계를 구축·심화시키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임

<일본 전력 공급의 장기적 목표>

구분	1996년도 (구성비, %)	2010년도 (구성비, %)
원자력	3021 (34.6)	4800 (45)
석탄	1237 (14.2)	1360 (13)
LNG	2037 (23.3)	2130 (20)
수력	838 (9.6)	1190 (11)
一般	713 (8.2)	980 (9)
揚水	126 (1.4)	210 (2)
地熱	36 (0.4)	120 (1)
석유류	1547 (17.7)	870 (8)
新에너지	13 (0.1)	90 (1)

자료 : 日本 電氣事業審議會需給部會, 「中間報告書」, 1998年 6月

(정오영)